

# 울산, 2차전지 · 태양전지 육성 순조

SB · 솔베이 · 코스모 2차전지 연관제품 생산 ... 한화는 태양전지 시동

울산시의 전지산업 육성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7월20일 전지산업 육성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SB리모티브와 삼성SDI, 솔베이(Solvay), 코스모화학, 한화케미칼 등 29개 대·중소기업이 2차전지나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SDI와 독일 BOSCH가 합작한 SB리모티브는 2010년 11월부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고, 솔베이는 리튬이온2차전지의 전해액 첨가제,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 기초소재인 황산코발트, 한화케미칼은 태양전지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와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UNIST 자연과학관에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 센터>를 설치하고 2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센터는 2차전지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교수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 명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정밀화학센터와 지역기업, 대학,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2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UNIST의 핵심 전지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사업, 울산시의 그린전기자동차 부품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에 이어 전지산업을 울산의 4번째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2차전지·태양전지 생산과 대학·연구기관이 이끄는 연구개발 클러스트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7/20>